

치솟는 금값... 금방 문턱 달는다

블경기에 금 팔아 현금화 하려 시세 문의 급증 추가 인상 기대감에 투자 목적 방문도 늘어나 거래소, 지난 7일 1g 장중 8만6700원 '역대 최고'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 아이 돌 보기를 차분하려고 왔어요.”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혼수의 거리’ 한 귀금속 매장. 이제 막 영업을 매장 안에 설치된 전화기가 연신 울려대기 시작했다.
업주 A씨가 걸려온 전화를 응대하고 끊자 연이어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매장으로 걸려온 전화 대부분은 이날의 금 시세를 묻는 내용이었다.
A씨는 “최근 금값 문의 전화만 하루에 50통에 달한다”며 “금값이 오르면, 경기가 좋지 않아 금을

차분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이들의 문의 전화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매장 입구에 순금과 18k, 14k 매입 시세를 큼지막하게 써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혼수의 거리에서 만난 박정훈(48)씨는 “지금 소유한 아파트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부족해 보유한 금을 현금화하려고 왔다”며 “전세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금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세가 높아 차분하러 왔다”고 말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금 거래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을 처분하려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고물가에 경기불황이 깊어지자 금값이 높을 때 차분해 현금화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금값이 훌쩍 뛰자 ‘행여 더 오르지 않을까’ 미리 금을 확보하려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금 거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금 1g은 지난 7일 전보다 1.21%(1030원) 오른 8만6330원을 기록했다. 이날 장 중에는 8만6700원까지 올라 지난 2014년 3월 24일 KRX 금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값은 달러, 즉 미국 국제 가치가 하락하면 대체재로서 오르는데, 최근 미국 SVB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금값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면서 금값이 오를 기회를 틈타 처분하려는 시민들의 사연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경기침체 속에 과거와 같이 차익을 실현하기보다 생계형 매도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창선(56) 한국금거래소 광주점 대표는 “사업 자금으로 보낼 현금이 없거나 자녀 결혼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며 금을 매도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심지어 생활비에 보태려고 집안에 묵혀 둔 귀금속을 꺼내와 판매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말했다.
금값이 급격히 오르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금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귀금속 매장이 실시간 변동하는 금 시세에 맞춰 금값을 올리다 보니 귀금속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방문하는 손님들이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주에는 하루에 6차례 금값이 오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한 금거래소를 찾은 김주용(66)씨는 “올해 말쯤 손자가 태어나는데 금값이 더 오르면 전 액이 돌 보기를 사려고 나왔다”며 “금값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고 있어 이른 시간부터 집을 나섰다”고 했다.
블경기 속 금값 상승세에 투자자들의 금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지난달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총 1841.2kg으로 전월 대비 59.2% 증가했다. 3월 금 거래량은 지난해 4월(2121.6kg)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이날 들어 지난 6일까지 NH농협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4억9760만원으로 1주일 만에 지난달 판매액(39억5594만원)의 63%가 판매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33년간 금요일 아침을 깨운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1600회 돌파 '전국 최장수'...경제·경영·인문학 등 다양한 현안 다뤄

국내 최장수 포럼인 '금요조찬포럼'이 오는 14일 1600회를 맞는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사진)는 14일 오전 7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연회장에서 1600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 회를 시작한 이후 지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개최됐다. 금요조찬 포럼은 기업 CEO 등 지역 노사민정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경영역신과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경제와 경영부터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지역 기업 CEO 등 경제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교육과 교류의 장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0년 11월 27일 금요조찬포럼 30주년



및 1500회 개최라는 기록을 달성,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정받았다. 그만큼 전국적으로도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명품 포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요조찬포럼은 저렴한 비용으로 매주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세상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데다, 각계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광주경총은 이번 1600회 기념 금요조찬포럼에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를 초청, '우

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인문학적 통찰을 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진석 회장은 “금요조찬포럼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에도 기여해왔다”며 “금요조찬포럼이 1600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준 지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광주 대표 경제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최근 양진석 회장이 취임한 뒤 회원사가 급증함에 따라 참석자도 15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회원사 조찬포럼 연회회원은 무료로 청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사를 비롯한 지역민 누구나 당회 2만원의 참가비를 내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농협, 고흥 거금도서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 11일 거금도농협(조합장 추부행) 인근 야외 행사장에서 올해 풍년을 기원하며, 농촌 영농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전남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선양구 고흥군 부근수, 이재학 고흥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해 농협전남본부 및 고흥군 관내 농축협 임직원 50여명과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남농협은 영농지원 발대식을 통해 ▲신안군 학습꾸러미 전달식 ▲거금도농협 농기계 전달식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결의대회 및 격려품 전달식 등도 진행했다.
특히 광주대학교는 2022년부터 전남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 시간을 학점 및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해당 재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도 전남농협과 광주대학교 봉사단은 발대식을 마치고 고흥군 금산면에 양파 재배농가를 찾아 수확기를 앞둔 영농철 일손지원을 위해 양파수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추부행 조합장은 “현재 농촌은 일손 하나가 너무나 절실하다”며 “새벽부터 먼 곳까지 한걸음에 와주신 전남농협과 광주대학교 대학생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인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전남 32개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촌 인력중개센터와 도시형농촌인력중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의 유휴 인력이 농촌 영농현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영국 신규 원전 사업참여 MOU 제안

정승일 사장, 영국 장관 면담 에너지 분야 전반 협력 방안 다뤄

한국전력은 정승일 한전 사장이 지난 11일 부산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과 영국 신규원전 사업참여 방안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정승일 사장은 영국 정부의 조직개편과 영국원자력청 설립을 통한 영국의 원자력 확대정책을 지지하고 한전이 정책달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한전과 영국원자력청간의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대한 협력 MOU 추진을 제안했다.
정 사장과 그랜트 샵스 장관은 원자력 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효율, 전기차 및 송배전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영국 원전사업 참여를 위해 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 등을 대상으로 전반위적인 수주 활동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경주에서 개최하는 국제원자력행사(ICAPP)에 신규 원전부지 지역구 의원(비지니아 크로스비)을 초청해 국내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공조달시장 진입·판로확대 무료 컨설팅

광주상의, 제조기업 선착순 모집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접생산증명서 및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광주 소재 제조기업으로, 선착순 11개사를 모집해 전문가 컨설팅(300만원 상당)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는 기존의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으로는 제품의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강화해 나라장터 등 전국 주요 기관의 입찰 정보를 제공,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판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본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은 12개 기업 모두 나라장터 쇼핑몰에 입점해 88억원의 납품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혜기업에 도움이 됐다”면서 “하반기에는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aT, 수리남 농수산물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 모색

농수축산부 장관 만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초청한 파르마냥 슈디엔 수리남 농수축산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농수산물식품 교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김준진 aT 사장은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Health Magazine)'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K-푸드 대표주자인 김치의 우수성 설명과 함께 전 세계인이 동참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사장은 “수리남은 국토 90% 이상이 열대우림으로 탄소 네거티브 목표를 달성한 친환경 국가”라며 “상호 교류 확대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한 저탄소 식생활 동참 등 ESG실현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아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aT는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브라질 상파울루에 지사를 개설했으며, 이를 수출 전진지기로 삼아 중남미 시장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일학습병행' 참여 기업 모집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기술강국의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한 교육훈련 제도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업무현장 및 사당장 외 훈련을 실시해 국가 자격을 주는 훈련제도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현장훈련비용으로 1인당 1000만원 내외, 기업현장교사 수당 연간 1300만원 한도, HRD 담당자 수당 연간 300만원 등 학습근로자 5인 기준 약 5000만원 내외의 정부지원금과 병역특례, 조달청 기산전 등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산업인력공단 광주본부는 일학습병행에 관심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HRD 전문가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62-970-1784-6. /박기용 기자 pboxer@

'청년 기술인재육성 취·창업지원' 교육생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21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진)는 오는 21일까지 '청년 기술인재육성 취·창업지원'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존 사업과 달리 기술인재사관학교 형태로 운영되며, 사관학교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 청년기업가 정신센터와 함께 기업가정신교육 및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 등 공통교육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이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취업과 창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기업입장에서 우수인력을 확보, 심화교육(현장 실무형 교육)이 진행할 시에 별도의 지원금에 지급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0.64(+2.78)
▼ 코스닥	890.62(-8.32)
▲ 금리(국고채 3년)	3.233(+0.002)
▲ 환율(USD)	1325.70(+3.50)